

### IV. 日本 動靜

오사카 APEC을  
겨냥해 ASEAN만  
의 同質性을 회복  
하려는 동남아시  
아 국가들의 노력

#### 오사카 APEC을 앞둔 ASEAN의 고민

- APEC으로 희석되는 ASEAN의 존재감
  - 지난 7월 ASEAN 外相회의, 9월 AFTA(ASEAN자유무역지역) 評議會에서 부루나이 국왕이 同지역의 관세 인하 시기를 3년 앞당길 것을 제안함
    - 이는 미국 주도적인 APEC이 활성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상실되는 ASEAN의 존재감을 提高시키고 ASEAN만의 同質性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임
  - 실제 AFTA의 무역자유화의 관건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화 대상 품목을 얼마만큼 확대시키느냐에 달려 있음
- 濠洲 또는 NAFTA와의 통합을 모색
  - APEC에 대응해 현재 AFTA를 호주, 뉴질랜드와 통합하거나 캐나다가 주장하는 NAFTA와의 연대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음

(「日經ビジネス」, 10.2)

일본 경제 성장의  
둔화로 더욱 지속  
될 향후 엔低 基  
調

#### 정착되는 엔高 是正 基調

- 최근 엔低 국면은 美日의 합작품
  - (미국측 입장)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'엔高 달러低' 국면에서는 달러 暴落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 완화의 환경 조성을 위한 엔高 是正이 필요했음
  - (일본측 입장) 불황 탈출을 위해서는 엔高 시정은 불가피함
- 엔低 기조는 결국 일본 경제 성장 둔화의 결과
  - 연말까지 105엔 전후한 엔低 기조가 예상되고 이런 추세는 내년 이후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  - 일본 산업의 해외 이전이 더욱 가속화될 상황에서 기존처럼 '엔低=수출增加' 도식은 기대할 수 없고, 일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장기적으로 엔低 기조가 불가피해짐

(「週刊東洋經濟」, 10.7)

향후 일본 경기는 회복되겠지만, 더욱 심화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기 兩極化 현상

**深化되는 일본 경기의 兩極化**

- 景氣 回復 기대감 고조
  - 1달러 100엔 전후의 엔低, 금리인하, 대규모 재정 지출 등으로 경영자 심리는 호전되고 있음
  - 수출 산업의 收益 예측이 상향 조정되고 있음
    - 자동차 업계는 오랜만에 흑자 경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
- 설비 투자의 海外 進出 加速
  - 설비의 해외 진출은 전기,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素材 産業까지 확대되고 있음
    - 95년도 철강 업계의 해외 설비투자는 전년도 대비 2.4 배 증가
- 경기의 兩極化 深化
  - 設備의 공급측과 수요측이 共存共榮하는 도식이 붕괴되고 있음
    - 대기업 設備投資의 海外 流出로 대기업에 설비를 공급해 오던 中小 기업은 新規 投資를 거의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됨

(「日本經濟新聞」, 10.2)

地球 溫暖化 현상으로 시급해진 에너지 정책

**시급한 에너지 政策**

- 化石 燃料 사용의 문제점
  - UN 보고서에 의하면 地球溫暖化 현상이 석유·석탄 등 化石 燃料의 대량 소비에 기인한다고 지적됨
- 중·장기 대책
  - 中期的으로는 에너지 절약 정책의 적극적 추진, 석유·석탄에서 천연가스, 메타놀, 수소, 핵분열에너지 중심으로 燃料 利用에의 전환이 요구됨
  - 長期的으로 인류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資源은 太陽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再生可能 에너지임.
    - 따라서 지구 전체 차원의 프로젝트로서 再生可能 에너지의 開發 및 大量 普及에 힘써야 할 것임

(「日本經濟新聞」, 10.7)